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부 자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고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방안 연구

- 단어 형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서 혜 인

사고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방안 연구

- 단어 형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

박 부 자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서 혜 인

인 준 서

서혜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 강 진 호 (인)

심 사 위 원 김 혜 련 (인)

심 사 위 원 박 부 자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문법 교육을 통하여 향상되는 학습자들의 국어적 사고력을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문법 교육은 문법 규칙을 암기하는 과목으로 여겨져 왔었다. 따라서 이러한 통념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찾고, 응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얻을 수 있는 사고력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미 사고력은 교육적 의미에 있어서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문법 교육만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사고력인 ‘문법적 사고력’으로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학습자의 사고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직접 교수법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안인 탐구 학습법을 통해 ‘단어 형성의 원리’를 배우는 각 단계에서 체득할 수 있는 사고력의 하위 체계를 찾아본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문법 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법 교육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III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의 ‘단어 형성의 원리’ 부분을 살펴본다. 교육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교과서 14종을 분석하여 교과서의 구성과 내용 선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서의 구성들을 분석해 보고, 바람직한 교과서의 모습에 대해 제안해 보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문법 교육에 적합한 핵심역량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문법 교육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찾아보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람직한 교과서를 토대로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단어 형성의 원리’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의 문법 교수 · 학습 방법보다는 학습자들 스스로 생각하고 규칙을 찾아가는 탐구 학습법, 사고 중심의 학습법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검토	5
II. 국어적 사고력의 향상과 문법 교육	8
1. 문법 교육의 성찰과 가치	12
2. 국어적 사고력의 개념과 구조	17
3. ‘단어 형성의 원리’와 문법적 사고력	23
III. 문법 교육에서 ‘단어 형성의 원리’ 실행 양상	28
1. 2012 개정 교육과정과 ‘단어 형성의 원리’	30
2. 2012 개정 국어교과서의 ‘단어 형성의 원리’ 실행 양상	35
IV. 사고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방안	52
1. 국어과 핵심역량과 문법 교육	52
2. 사고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교수학습계획안	57
V. 결론	69

참고 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차

[표 1] 사고력의 개념 정리	9
[표 2] ㄱ. 심화 선택 과목의 학교수별 분포 현황	13
[표 3] ㄴ. 심화 선택 과목의 단위수별 분포 현황	13
[표 4] 사고력 향상의 도구로서의 언어	19
[표 5] 이충우의 문법 교수 모형(1994)	23
[표 6] 2012 개정 교육과정 ‘국어’ (밀줄 연구자)	30
[표 7] 2012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밀줄 연구자)	32
[표 8] 2012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의 교과목 체제 변화	33
[표 9] ‘단어 형성의 원리’ 부분 교과서의 대단원과 소단원명 학습목표	35
[표 10] ‘다른 소단원과의 결합 구조’에 따른 분류	42
[표 11] ‘교과서의 구성 형식’에 따른 분류	45
[표 12] 교과서별 단어 형성법 부분 비교	47
[표 13] ‘독서와 문법’(2013) 교과서 6종의 목차 체계	50
[표 14]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핵심역량의 6가지 개념	52
[표 15]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핵심역량과 개념	55
[표 16] 대단원 교수 학습 계획(총 9차시)	63
[표 17] 차시별 교수 학습 계획	65

부 록

[부록 1] <비상교육(한)>의 ‘단어 형성법’ 설명 부분

[부록 2] <천재교과서>의 ‘단어 만들기’ 부분

[부록 3] <미래엔>의 ‘단어의 짜임’ 부분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문법 교육, 그 중에서도 ‘단어 형성의 원리’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단어’는 말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단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단어 형성의 원리를 탐색하고 응용하는 과정의 즐거움을 통하여 학습자의 사고력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어 교육 내에서 그 가치와 위상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문법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사고력’의 향상을 근거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문법(文法)은 ‘말의 법’으로써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을 나타낸다.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습득하는 자연 언어 이후에는 자신이 태어난 사회안의 ‘말의 법칙’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의 법칙은 의사소통을 하는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문법에 맞게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법을 배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기능의 습득을 말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문법 교육의 가치를 이러한 일차적인 의사소통 기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문법의 규칙을 익히고 스스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사고를 구조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문법 교육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문법의 규칙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논리성과 탐구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밝히는 국어과 과목의 핵심역량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비판적 · 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와 정보의 활용 역량’에서 그 역량의 활용이 최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법 교육의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능력, 사고 능력, 탐구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저에는 ‘사고력’, 즉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본고에서는 문법 교육의 내용 가운데 ‘단어 형성의 원리’를 활용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어 형성의 원리’ 교육의 학습목표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이해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형태소, 단일어와 복합어, 그리고 어근, 접사, 어간, 어미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어근, 접사, 어간, 어미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단어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단어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이 학습자들의 사고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법 교육의 많은 영역 중에서도 ‘단어 형성의 원리’를 통해 사고력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는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문장을 스스로 만들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문장은 단어들의 조합이고,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바로 단어를 구성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둘째, 단어는 어근과 어미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어 형성의 원리를 체득하여야 단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 단어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에 제시한 근거에 따라 학습자는 단어가 형성된 모습을 인지하고,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이용하고 적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 주어진 자료들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떠올리고, 새로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법칙, 이론, 원리, 절차를 끌어 들여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도 기를 수 있다. ‘단어

형성의 원리'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사고는 끊임없이 자극되고 이 과정에서 논리성, 탐구성, 종합성과 같은 사고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학습에 대한 철학과 이론도 학습자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고력에 대한 관심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개발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특히 사고력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를 볼 때, 문법교육이 중요함에도 그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는 단어 형성 원리 안에서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통해 사고력 향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실제 학습자들이 문법의 개념 및 체계를 습득하는 과정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고력의 정의를 정리하고, 사고력과 문법 교육이 갖는 연관성을 증명한다. 사고력이라는 단어 앞에는 많은 어구가 붙어서 '~적 사고력'이라는 명칭으로 각 영역의 사고력을 정의할 수 있다. 이 중 '문법적 사고력'은 국어 교과 중 문법 교육을 통하여 발현될 수 있는 특수한 사고력을 뜻한다. 문법 교육을 통하여 어떤 영역의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는지 사고력의 하위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고력과 문법 교육의 연관성을 통해 단순한 암기를 통한 문법 교육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규칙과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사고력을 검증해 내고자 한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핵심역량이 국어 교육의 어떤 부분에서 연관성을 맺을 수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제시된 핵심역량이 '단어 형성의 원리'와는 어떻게

연관되고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셋째, 학교 현장의 문법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단어 형성의 원리를 스스로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탐구학습법을 활용하여, 이해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등 사고력 확장을 위한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는 문법 교육을 통하여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따라서 이전에 이뤄진 선행연구를 ‘사고력’과 ‘문법 교육’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어 교육의 영역 안에서 문법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교육을 통해서 ‘사고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사고력’에 대한 연구에는 최홍원(2010), 김대행(1998), 노명완(2004)이 있다.

먼저, 최홍원(2010)은 국어 교육을 통하여 기를 수 있는 사고의 영역을 체계화하였다. 우선 사고의 개념을 언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지적, 정의적 정신활동, 그리고 언어를 매개로 주체가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단어 형성의 원리’라는 문법 교육을 통하여 향상시킬 수 있는 사고력의 영역을 체계화하고 국어 교육의 본질과 국어 교육 내용의 교육적 의의를 재정의하였다.

김대행(1998)에서는 문학교육 안에서 사고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문학교육 안에서 사고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의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문학교육의 설계(기술하기 - 비교하기 - 연상하기 - 적용하기 - 분석하기 - 논란하기)를 통해 다양성에 입각한 사고의 유연성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고력의 향상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사고력의 향상은 국어 교육의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개인이 문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다양성에 의해 사고력이 향상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문학과는 갈래를 달리하는 문법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고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노명완(2004)에서는 변화가 심한 시대와 사회에서 창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시대 국어 수업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국어 수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언어가 개인 내적 사고의 도구이며, 타인과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써 언어의 도구적 특성을 강조하며 언어 사용 그 자체로 고등 수준의 사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앞에서는 국어 과목의 전체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고력’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에 범위를 좁혀 ‘문법적 사고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법적 사고력’에 대한 연구에는 송현정(2004), 박서영(2014), 강민이(2016)가 있다. 이들은 모두 ‘문법적 사고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학습자들의 직접적인 탐구를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송현정(2004)에서는 Bloom(1956)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법적 사고력을 ‘지식,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교육학 논의에서 주로 제시하는 Bloom(1956)의 의견을 기준으로 삼아 그 틀에 가감 없이 들어맞는 문법적 사고력을 제시했지만, 문법 교과에서 실현되는 고유의 사고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박서영(2014)은 문법적 사고력을 ‘핵심적 언어 단위와 요소의 분석, 문법 규칙의 발견과 적용, 언어적 맥락의 추론과 문법적 판단’으로 재개념화하고 세부 능력을 제시하였으나 학습자 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가진다.

강민이(2016)는 사고구술을 통하여 문법 탐구형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촉진되고 활성화되는 문법적 사고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실제로 학습자 10명의 사고 구술을 분석하여 문항별 사고의 활성화를 정리하였으나 학습자의 모든 사고 과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탐구형 문항에서만 이 연구가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기존 연구들을 통하여 문법 교육의 사고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학교에서 이뤄지는 주입식 문법 교육의 한계

를 체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떠오른 학습 방법이 있다. 문법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온 교수 학습 모형이 바로 ‘탐구 학습법’이다. 이러한 탐구 학습의 대상이 되는 문법적 내용에 관한 논의는 송현정(2004)과 김홍범(2008)에서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송현정(2004)에서는 국어 교육 연구자들이 지식을 보는 관점을 정리하면서 언어 사용을 위한 과정적 지식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문법 교육 내용을 통하여 사고력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추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블룸의 교육목적분류표에 따라 사고력을 정리하고 초등학교 문법의 지도 내용을 지도 목표, 주요 관련 사고력의 관계로 분석하였다.

김홍범(2008)에서는 문법 교육만의 특수한 사고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고등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문법 교육의 목표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는 탐구학습법을 이용하여 고등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방면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고력의 범위를 문법의 영역으로 축소하여 문법적 사고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단어 형성의 원리’의 개념을 학습자가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력의 각 부분을 정리하며, 이 과정이 사고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단어 형성의 원리’ 내용이 나타난 2012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법 교육을 성찰 · 비평하고,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방안을 탐구 학습법을 통해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II. 국어적 사고력의 향상과 문법 교육

국어라는 과목은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각 영역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통합하여 학습자들의 국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립적인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국어 교육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법 교육의 현실을 기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국어적 사고력 향상을 통해서 문법 교육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사고력’이라는 용어는 이미 교육학의 많은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그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 다룰 사고력이라는 개념을 사고력, 국어적 사고력, 문법적 사고력이라는 개념으로 세분화하고 각 개념과 이 개념들 간의 위계 관계를 정리해 보겠다. 서혁(1997: 133-136)의 논의를 빌리자면, ‘사고(思考)’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어 어떤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 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면서 기존의 지각, 정서, 정신 등의 용어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기도 한 실정이다.

국어적 사고력은 국어 과목을 통해서 배우고 향상할 수 있는 사고력을 말한다. 국어 사용은 노명완(1988: 17)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언어와 의미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표현과 이해의 과정과 활동을 말한다. 즉 언어를 의미로 환원하는 과정이 이해이고, 의미를 언어로 나타내는 과정이 표현이다.

하성욱(2008)은 문법적 사고력을 “문법 지식을 이용하여 국어 문제에 관해서 가설을 산출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국어 이해에 도달하려는 의도적이고 복합적인 정신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문법적 사고력의 하위범주로 인지 중심적 사고력, 전략 중심적 사고력, 정의 중심적

사고력, 맥락 중심적 사고력을 제시하며 일반적인 국어적 사고력과 구별되는 문법적 사고력에 존재하는 특징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인지 중심적 사고력은 문법 영역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잘 아는가가 주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략 중심적 사고란 초인지 능력으로, 문법 과제를 해결할 때 자신의 사고를 자각하고 조절할 줄 아는 조정 능력을 뜻한다고 하였다. 위에 제시된 하위 범주들(인지 중심적 사고력, 전략 중심적 사고력, 정의 중심적 사고력, 맥락 중심적 사고력)이 모두 문법적 사고력을 이루는 것들로서, 문법적 사고력은 이 네 가지 차원의 요소들이 고루 상호작용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표 1] 사고력의 개념 정리

단어	의미
사고력	<p>[명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각하고 궁리함. 2. 『심리』 심상이나 지식을 사용하는 마음의 작용. 이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직관적 사고, 분석적 사고, 집중적 사고, 확산적 사고 따위가 있다. 3. 『철학』 사유 <p style="text-align: right;">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p>
국어적 사고력	<p>국어(텍스트)를 통한 새로운 사실의 인식, 조정, 창의적 발견으로서의 사고 수행 능력</p> <p style="text-align: right;">서혁(1997)</p>
문법적 사고력	<p>문법을 탐구의 대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포함된 총체적 능력</p>

먼저, 사고는 언어라는 매개를 통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한다. 언어는 기호와 표상으로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그 언어가 나타내고 있는 ‘무엇’을 인지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기호와 표상은 본질적으로 주체에게 무엇인가를 인지하

고 그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의 과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어 교과는 “지식이나 정보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수용, 분류, 비교, 통합, 조직, 추론, 상상, 기억 인출 등의 모든 정신 작용) 지적 사고 능력을 지도하는 교과”(노명완, 2004: 12)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언어는 사물이나 사상을 구체적인 상징 부호로 재현하는 것이고, 언어 작용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행위가 언어 교육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최홍원(2010)에 따르면 사고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가설, 검증, 결론에 이르는 심리 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고 교육이란 문제 사태에 직면한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국어 교육에서의 사고는 외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복사·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 의해 해석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주체가 언어를 통해 대상을 인지하고 어떤 관련을 맺을 것인가 고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 대상이 갖는 ‘의미의 이해’를 중요한 과제로 여기게 된다.

따라서 국어 교육에서의 사고는 사실과 가치라는 탐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 자연과학적 사고와 정신과학적 사고로 구분이 가능하다. 다만 이 사고는 내용상의 차이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고 과정에서 주목하는 바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블룸(Bloom: 1956)의 목표분류학을 통하여 사고력의 범주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제시한 목표분류학은 교육목표를 인지적 측면에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나누었는데, 이는 각각 기억력,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 등의 사고력과 관련된다. 이러한 사고들은 국어 교육의 내용과 위계를 구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축이 되어 왔다(이삼형 외, 2007: 76). 이를 기반으로 기본적 사고와 복합적

사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본적 사고: 사실, 추론, 정서, 심미적 사고

복합적 사고: 문제해결, 창의, 비판, 윤리, 메타적 사고

문제해결, 창의, 비판, 윤리, 메타적 사고와 같은 복합적 사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추론, 정서, 심미적 사고와 같은 기본적 사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적 사고력 향상과 문법 교육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1. 문법 교육의 성찰과 가치

국어에 대한 지식도 전통적으로 국어과에서 중시되어 왔다. 국어 지식 영역에서는 물론 언어와 국어에 관한 기본이 되는 지식을 학습시킨다. 그러나 국어에 관한 지식은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이기보다는 국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곧, 국어에 관한 지식의 적절한 활용으로 국어를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함께 언어 현상에서 규칙과 원리를 발견하는 탐구 능력을 기르고, 국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국어를 소중히 여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박영목(2011: 35-37)에서는 ‘문법’ 학습이 언어 현상의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활동임을 강조하고, 학습자가 학습한 지식을 국어 사용 실제에 적용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즉, 국어 지식에 대한 학습은 교사 위주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언어 현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발견하고, 이렇게 습득한 지식을 국어 사용 과정에서 활용하는 활동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국어 지식 학습을 학습자들의 탐구 학습 중심으로 개선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관규(2013: 39)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상황과 교사의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본 전체 국어 교육에서 문법 영역은 제 7차 때는 12.5%, 제 8차 때는 16.7%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이런 수치는 단순히 교육과정의 단위수를 제시한 것일 뿐이고, 실제 현장에서 과목으로 설정되는 것과는 차이가 나며, 더구나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과는 더 차이가 난다. 아래에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ㄱ)은 서울시 교육청 산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선택한 심화 선택 과목들을 2004년에 조사한 것으로, 196개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영역별 심화 과목을 선택한 학교의 숫자와 그 백분율을 담고 있다.

(1) 심화 선택 과목의 학교수별/ 단위수별 분포 현황-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2004)

[표 2] ㄱ. 심화 선택 과목의 학교수별 분포 현황

과목	문학	독서	작문	화법	문법	합계
학교수	185	172	171	85	102	715
백분율	25.9%	24.0%	23.9%	11.9%	14.3%	100%

[표 3] ㄴ. 심화 선택 과목의 단위수별 분포 현황

과목	문학(8)	독서(8)	작문(8)	화법(4)	문법(4)	합계
단위수	1480	1376	1368	340	408	4972
백분율	29.8%	27.7%	27.5%	6.8%	8.2%	100%

서울시 교육청 산하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문학(185개), 독서(172개), 작문(171개)을 선택하고 있고, 문법(102개)은 반 조금 넘게 선택하고 있다. 각 영역을 백분율로 보았을 때도, 문학, 독서, 작문의 중요도는 비슷하게 높으나(각 25.9%, 24.0%, 23.9%), 문법은 전체 14.3%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온 수치로 단지 학교 숫자만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는 몇 시간 수업하느냐 하는 이수 단위가 중요하다. 앞의 세 영역은 이수 단위가 각 8단위를 차지하고 있고, 문법과 화법은 각 4단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제적인 문법 영역의 위상은 더 낮아진다. (1ㄴ)에서 보듯이 문법 영역은 그 위상이 8.2%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이 수치도 실제 고교 수업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간표 상

에는 ‘문법’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이뤄지는 수업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충 수업 등을 통해서 특히 문학 영역 수업이 훨씬 더 많이 실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문법의 중요성이 낮게 여겨지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도 연관이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집중하여 수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과목에는 전체 45개의 문항 중에서 문법이 차지하는 문항은 4개밖에 이르지 않는다. 이는 국어의 하위 영역(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중에서 0.08%만을 차지하는 것이다. 단순히 숫자만 비교했을 때에도 그 중요성이 떨어지므로 실제 수업현장에서 문법의 상대적인 위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교과서의 구성에서도 문법의 부분은 1/6개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문법 교육의 소홀함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법 교육의 기능과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문법을 왜 가르치는지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관규(2015: 85)에서는 “주변 세계와 스스로를 정의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문법은 본래부터 재미있고 지적인 도전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남기심 · 고영근(2014: 441-443)에서는 문법 교육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말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개인의 사고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뜻을 주고받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다. 말하기, 쓰기는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며, 읽기, 듣기는 남의 생각을 수용하는 방

법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면의 국어 교육이 필요하고 그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문법 교육은 남의 생각이나 자기 생각을 정확하고 명석하게 수용 또는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핵심적인 구실을 한다.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의 앞뒤를 맞추어 풀어나가는 것은 말이 구조로 매여 있기 때문이다.

말과 생각은 근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말 없는 생각이란 상상할 수 없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말에 반영되는 동시에 말의 구조는 사고방식을 이끌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소쉬르 같은 언어학자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심리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은, 말로써 표현되지 않고서는 형태가 없고 분명하지 않은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기호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두 관념을 똑똑하고 한결같이 구별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철학자나 언어학자가 다 같이 인정하는 일이다. 그 자체로 본다면, 생각이란 것은 꼭 한정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미리 형성된 관념이라곤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언어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똑똑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문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어려운 문법용어의 등장일 것이다. 학습자의 머릿속에 제대로 된 개념으로 문법 용어가 자리 잡기도 전에, 많은 용어의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를 활용한 문법 규칙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법 용어가 생겨나게 된 기초적인 지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이해하는 단계

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탐구력은 학습자의 사고력 향상에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발견하고 얻게 되는 지식은 학습자 스스로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이나 책에 제시되어 있는 규칙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이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고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희열은 계속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사고방식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문법 교육은 그 논리적인 문법체계를 이해시키는 데 있다. 사고력의 하부체계 간 관련성과 상부체계와의 관련성을 이해시켜 종합적인 문법체계를 이해시키고 학습자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것에 문법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앞 장에서는 ‘국어적 사고력’이라고 하여 국어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고력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문법 교육의 기능과 가치를 알아보고, 문법 교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문법적 사고력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국어적 사고력의 개념과 구조

사고력은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중 국어 교육을 통하여 향상시킬 수 있는 특수한 사고력을 ‘국어적 사고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고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어서 국어적 사고력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김현진(2015)에서는 문법 교육 고유의 사고력을 언어 현상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문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기능이라고 요약하였다. 학습자 스스로 문법적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발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 과정을 사고력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매튜 린덴(2005: 59)이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내기 시작한 때는 20세기 초반이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교육 현장에서 탐구란 말이 학문적인 용어로 등장해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바로 듀이(Dewey)에서부터이다. 듀이는 탐구를 위해 반성적 또는 성찰적 사고를 강조하였는데 반성적 사고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의심 또는 의문을 갖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의심과 의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뜻한다. 듀이는 탐구의 절차로 특정한 문제 상황의 인식, 그 상황의 조건에 대한 관찰, 잠정적인 결론의 형성과 합리적인 수정, 능동적인 실험적 검증을 제시하였다.

탐구학습과 비슷한 학습의 과정을 갖고 있는 것이 발견학습이다. 발견학습은 브루너(Bruner)에 의해 제창되고 체계화되었다. 브루너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른바 개개의 지식보다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브루너는 유목화의 방식을 강조하는데, 여러 현상이나 사실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여기에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

아내고 이를 하나나 여러 개의 유목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거나 개념을 획득할 것을 강조하였다.

듀이가 사용한 탐구 학습과 브루너가 사용한 발견 학습은 모두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탐구 활동을 거쳐 지식이나 개념을 터득할 것을 강조한다. 듀이의 탐구 학습에서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실용성의 측면을 강조하고, 학습자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식이 형성됨을 밝혔다. 그리고 탐구 학습은 지식이나 개념의 습득보다는 그것을 학습하는 방법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 반면에 브루너의 발견 학습에서는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면서 지식을 지식 자체에 관련지으려고 했다.

김중률(2014: 17-19)에 따르면 국어 교육학적 관점에서 인지적 사고의 체계화를 거론하는 이유는 그 체계화에 의해 사고력 향상이라는 국어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을 효율화할 수 있고, 국어과 교수·학습의 질적 수준을 학년 발달에 따라 조직할 수 있으며, 국어과 텍스트 경계의 확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사고 발달 단계별로 사고력 향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제시한 표는 매튜 린맨(2005: 72-77)에 제시된 피아제의 사고 발달 단계를 중심으로 언어적인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사고력 향상의 도구로서의 언어

사고 발달 단계	아동의 연령	언어적인 특징
감각 · 운동기	2세까지	한 단어, 전보 언어
전조작기	6~7세까지	전체 문장(문장이 길어지고, 다양해짐)
구체적 조작기	11세까지	문자 언어 습득, 어휘의 수 증가, 문법적 능력
형식적 조작기	15세까지	언어로 모든 지적인 조작을 함, 문자 언어를 통한 지식과 정보 전달 · 전수

사고 발달 단계 특징과 의미는 아동의 연령과 언어적인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이 완성된 사고 발달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15년이 걸린다. 이에 비해 아동이 전체 문장 발화시기와 같은 완성된 언어 발달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6~7년이 걸린다.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사고 발달 단계는 언어 발달 단계 이후에 완성된다는 것이다. 즉 사고력다운 사고(=형식적 조작기)는 하나의 언어가 완전히 발달한 다음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인간의 사고력은 앎이나 느낌 같은 것을 기호화하는 능력, 여러 기호들을 일정하게 조작하는 능력,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내는 능력 등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사고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구실을 하는 것은 바로 언어이다. 언어가 이와 같은 사고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단어 형성의 원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의는 IV장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방안’에서 교수 학습 계획안을 통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국어적 사고란 국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인지적이고도 정의적인 심리 활동의 과정을 뜻한다. 국어를 통한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국어를 통해 생각하고 말할 때에 거치게 되는 과정이자 활동이다. 이는

관습적이고 규범적인 국어 활동은 물론 창의적인 국어 사용의 과정과 절차를 포함하게 된다. 국어적 사고력은 국어 텍스트를 바탕으로 어떤 지식이나 경험, 정서 등과 관련한 의미를 구성하거나 표현하는 정신 활동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적 사고력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다. 사고는 어떤 주체의 지식, 경험, 정서를 바탕으로 또 다른 대상이나 지식, 경험, 정서 등 모든 현상에 대하여 의미를 구성, 판단, 산출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신 활동이다. 사고력은 이러한 정신적 능력을 가리키고, 국어적 사고력은 지식, 경험, 정서 등의 현상과 관련하여 언어인 국어로 의미를 구성하고 판단하며 표현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신적 능력을 가리킨다.

중요한 것은 사고력이 교과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저절로 충분히 개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사고력은 모든 교과의 교육에서 중요한 한 가지 목표이며,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김영채, 1998: 17).

현재까지 마르차노(Marzano, 1989), 서울대 국어 교육연구소(1998), 베이어(Beyer, 1988), 김영채(1998)의 사고(력)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교육목표분류학의 블룸 등 사고와 사고력, 사고 기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이들은 각각 다양한 목적과 관점에 따라 사고나 사고 기능을 범주화하고자 시도했다. 이들을 참고하여 국어적 사고력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적 사고력의 구조>

1. 국어 및 국어 문화 지식과 사용 전략

(1) 국어 및 국어 문화에 대한 지식

(2) 국어사용 전략

2. 인지적 사고

(1) 기본적 사고 기능

① 기억, ② 이해, ③ 적용, ④ 분석, ⑤ 종합, ⑥ 평가

(2) 확장적 사고

① 개념 형성, ② 설명, ③ 예측, ④ 가설 형성

(3) 복합적 사고

① 문제 해결, ② 비판적 사고, ③ 의사 결정, ④ 창의적 사고

3. 정의적 사고

(1) 정서적 사고

① 반응, ② 연상, ③ 상상, ④ 내면화

(2) 심미적 사고

① 형식, ② 내용

4. 상위인지

(1) 자기 점검

(2) 자기 평가

(3) 자기 조정

국어적 사고력은 국어 및 국어 문화 지식과 사용 전략을 바탕으로 하면서, 지식이나 경험과 관련하여 크게 인지적 사고, 정의적 사고, 상위인지로 구분된다. 또한 국어 교과가 범교과적인 특성을 가졌다는 것은 국어과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어적 사고력이 국어 과목 내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국어적 사고력은 모든 사고의 기초를 이룰 수 있는 토대이며, 이 기초가 잘 다져진 후에야 다른 과목에서의 발전적 사고도 뒤따라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뛰어난 공학자가 무인자동차를 발명하여 ‘무인자동차’라는 실체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인자동차를 발명하게 된 동기, 작동하는 원리, 그리고 무인자동차 상용에 따른 결과 등 일정한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여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에게 그 원리를 설명하고 의사소통할 수 없다면 그 실적은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3. ‘단어 형성의 원리’와 문법적 사고력

이충우(2015)에서 제시한 문법 교수 모형¹⁾에 따르면 “언어 자료 제시 → 규범 적용 → 규칙성 찾기 → 규범 이해 → 언어 생활 적용”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위 제시된 과정에서 사고력의 향상이 이뤄질 수 있는 단계는 주로 “규칙성 찾기, 규범 이해, 언어 생활의 적용” 부분이다. 교수자의 일방적인 지도에 의해 규칙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찾는 과정, 그리고 그 규칙을 이해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에서 사고가 이뤄지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 사고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어 형성의 원리’를 위에 제시된 “언어 자료 제시 → 규범 적용 → 규칙성 찾기 → 규범 이해 → 언어 생활 적용”의 과정을 통하여 왜 규범에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언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을 적용함으로써

1)

[표 5] 이충우의 문법 교수 모형(1994)

1	언어 자료 제시	현실 언어(가능한 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다양하게 선정
2	규범 적용	선정된 언어에 학교 문법을 적용, 적용상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탐구
3	규칙성 찾기	규범 적용에서 나타난 규칙성을 정리. 규범과 규칙성의 연관성 이해
4	규범 이해	교육에 필요한 규범의 실체(교과서나 규범은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필요한 것)를 이해
5	언어 생활 적용	규범에 어긋난 언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덜 적합한 것임을 알고 더 적합한 언어 사용

사고력을 기를 수도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규범 적용’의 단계에서는 학교 문법을 적용하고 적용상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탐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학습했던 학교 문법을 떠올리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이어서 학습자들의 능동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제 정의 단계 - 가설 설정 단계 - 가설 검증 단계 - 결론 진술 단계 - 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는 탐구학습법을 통하여 문법 교수 학습계획안을 적용해 볼 것이다.

이와 같이, 이충우(2015)에서 제시한 문법 교수 모형의 단계보다 탐구학습 모형이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가 많고,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탐구해 보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탐구학습모형을 제시하였다. 아래에서는 ‘단어 형성의 원리’의 일반적인 문법을 설명하고, 각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력의 하위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이 실제 학습에 적용되는 것은 IV장의 교수학습 계획안을 통하여 자세히 나타낼 것이다.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로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이뤄질 때 가장 기본이 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때에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말의 의도가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단어의 선택이 중요한데, 이런 단어의 종류와 단어를 이루는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단어 형성의 원리’에서 필요한 문법 용어는 형태소, 단어, 어근, 어미, 어간, 접사이다. 각 문법 용어의 뜻을 먼저 정리하고 개념을 숙지하고 각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고, 단어는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을 뜻한다. 어근이란 ‘말의 뿌리’라는 의미로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그리고 어미는 어간에 붙어서 용언 및

서술격 조사가 활용되어 변하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점잖다’, ‘점잖으며’, ‘점잖고’에서 어간은 ‘점잖-’이고, 어미는 ‘다’, ‘-으며’, ‘-고’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어간은 단어를 만들 때에 굴절하는 단어 내에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뜻한다. 한 단어에서 개념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 어간은 변하지 않다고 배우기 때문에 어근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근이 접사가 함께 결합하고, 어간이 어미와 함께 결합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를 분석하고 어근, 어간, 어미, 접사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탐구력, 분석력, 종합력을 배울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력의 하위체계에 의해 사고력의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최소 의미 단위인 형태소는 그 자체로 단어가 되거나 단어의 구성 요소가 된다. 형태소 하나가 단어 하나로 될 경우에는 단일어라고 한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가 될 경우에는 복합어라고 한다.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뉘는데,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은 것이고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두 개 이상의 어근과 접사가 함께 나타난 복합어는 개별 형태소의 결합 방법에 따라 파생어 또는 합성어의 성격이 결정된다. 즉 단어 형성 과정에서 최종 결합 형태소가 접사이면 그 단어는 파생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즉 최종 결합 형태소가 어근끼리이면 합성어가 된다. 이처럼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고,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뉜다.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안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의미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이지만, 어근이 갖고 있는 실질적 의미는 어휘적 의미를 뜻하는 것이 보통이다. 접사는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역시 형태소인 이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어휘적 의미에

상대적인 것은 문법적 의미인데, 조사와 어미 정도는 아니지만 굳이 접사의 의미를 논한다면 어휘적 의미보다는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이 일반적인 문법의 용어를 제시하고 설명하면 학습자들은 문법 교육을 여전히 어렵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 제시한 신사고(우)(2013: 123)의 본문과 같이 실제 학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통해서 문법의 용어를 설명하고 단어 형성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끼가 꺾사과를 먹는다.’라는 문장을 각각의 단어들로 나누어 어떤 단어들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 ‘토끼가 꺾사과를 먹는다.’라는 문장에서 ‘토끼’, ‘꺾사과’, ‘먹는다.’는 홀로 쓰일 수 있으므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가’와 ‘를’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각각 ‘토끼’와 ‘꺾사과’처럼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서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며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단어에 포함된다. 따라서 ‘토끼가 꺾사과를 먹는다.’라는 문장은 ‘토끼’, ‘가’, ‘꺾사과’, ‘를’, ‘먹는다.’라는 다섯 개의 단어로 나눌 수 있다.

단어는 형태소들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며 단어의 중심이 되는 형태소를 ‘어근’이라고 하고,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 뜻을 더하는 형태소를 ‘접사’라고 한다. 많은 단어들이 어떤 형태소들로 이루어져있는지를 나누어 보고 찾는 과정에서 추리력, 탐구력, 종합력의 사고력이 발휘될 수 있다.

먼저 ‘꺾사과’는 ‘꺾-’이라는 접사와 ‘사과’라는 어근이 결합되었다. ‘꺾-’과 ‘사과’가 합쳐진 ‘꺾사과’에서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며

단어의 중심이 되는 형태소는 ‘사과’이고 그 앞에 붙어서 뜻을 더하는 형태소는 ‘꽃-’이다. 따라서 ‘꽃사과’의 어근은 ‘사과’이고 접사는 ‘꽃-’이다. ‘먹-’과 ‘-보’가 합쳐진 ‘먹보’에서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며 단어의 중심이 되는 형태소는 ‘먹-’이고, 그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하는 형태소는 ‘-보’이다. 따라서 ‘먹보’의 어근은 ‘먹-’이고 접사는 ‘-보’라고 분석할 수 있다.

Ⅲ. 문법 교육에서 ‘단어 형성의 원리’ 실행 양상

재미있지 않고 배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문법학습을 피하는 학습자들이 많이 있다. 문법이 재미없고 짜증나는 이유는 문법지식과 규칙을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하는 수업 현실과 그 문법의 규칙을 스스로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와 그 내용을 암기하고 뒤돌아서 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배우는 일련의 반복적인 과정은 학습자들이 문법 수업을 기피하는 이유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습자들이 ‘재미가 없다’라는 이유로 문법 학습을 기피하는 것에 대하여 이관규(2015)에서는 오늘날의 사회는 학습에서조차도 오락에 초점을 두어 ‘재미’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또 이렇게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교과를 배우기 위해 꼭 필요한 힘든 작업들을 하찮게 보이게 하는 태도로 연결된다고 언급하며 이는 문법 교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학습자들이 자동적으로 문법 수업에 대해 ‘짜증나는 과목’ 혹은 ‘시간 낭비하는 과목’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학습자들의 흥미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들의 관심을 무조건 ‘재미’라는 명목으로 붙잡아 두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재미가 없더라도 그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 훗날에도 자신이 사고하고 가치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생각의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미없는 문법 교육에서 학습자들 스스로 알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도록, 나아가서 그 문법의 규칙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가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선 학습자들이 문법 영역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고춘화(201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어 교육의 다른

영역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색을 시도하던 시기에 문법 교육은 교육 내용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국어학적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결국 문법 교육은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춘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에 대한 고민보다는 학계에서 논의된 국어학적 지식을 그대로 학습자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수준에 맞지 않은 국어학적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국어 문법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문법’이라는 것은 말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한 문법적 규칙을 스스로 찾고, 익히며 사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고력은 향상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도 원활히 이뤄진다. 이런 문법의 문제를 발견하고, 규칙을 찾는 과정은 국어 교육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공든 탑이 무너지라’라는 말이 있듯이 기본부터 탄탄히 다지는 것은 그 이후 언어발달의 토대가 될 것이다.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 하려고 하더라도, 문학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 기본 바탕에는 문장들이 있고,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단어들이며, 단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규칙을 알아야 한다. 이 문법적 규칙들은 본인의 사고를 통해 구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갖춘 문법 교육이 국어 교육 내에서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과정, 교과서, 그리고 실제 수업 현장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하겠다.

1. 2012 개정 교육과정과 ‘단어 형성의 원리’

문법 교육을 통해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법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근간인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2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단어 형성법 교육의 세부 내용을 살펴서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학교 문법 교육이 이뤄지는 바탕에는 교육과정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201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단어 형성의 원리’ 교육의 성취기준을 살펴보고, 사고력 향상을 위한 탐구과제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표 6] 2012 개정 교육과정 ‘국어’ (밑줄 연구자)

- 문법 -		
내용 체계		
실제 • 국어 문화와 자료 - 구어 자료, 문어 자료 • 다양한 매체와 국어 자료		
지식 • 언어의 특성 • 국어의 구조 • 국어의 규범	탐구와 적용 • 국어의 분석과 탐구 • 국어 지식의 적용 • 국어 생활의 점검과 문제 해결	태도 •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 • 국어 탐구에 대한 흥미 • 국어 의식과 국어 사랑
[영역 성취 기준]		
국어 운용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통해 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국어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국어 발전에 참여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기른다.		

[내용 성취 기준]
<p>(5)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한다.</p> <p>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다양한 단어들에 대한 국어 인식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성되는 새말의 특징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일상적 국어 생활의 양상을 자각하고 단어의 세계에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다. <u>국어 단어 형성법을 먼저 이해시킨 뒤 최근에 새롭게 생성된 다양한 새말들의 단어 형성 방법을 분석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u> 왜 어떤 단어들은 쉽게 사라지는데 또 다른 단어들은 항구성을 지니게 되는지를 새말들의 뜻과 사용 상황, 단어 형성 방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단어들의 신생, 성장, 소멸의 과정을 토의해 보게 한다. 의사소통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형태적으로 적절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국어 생활에 대한 통찰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게 하고, 단어들의 신생, 성장, 소멸 과정에 대한 자각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국어 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단어는 의사소통하는 데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다. 또한,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언어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법 단위이다.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말하지 않고 ‘단어’만 사용하여 말을 하더라도 그 뜻은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단어형성법의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 요소는 ‘단어 형성법의 원리’, ‘새말의 단어 형성 방법 분석’, ‘새로운 단어 만들기’, ‘단어들의 신생, 성장, 소멸의 과정 탐구’이다. 그동안 단어형성법 교육에서는 단어형성의 체계를 크게 ‘합성’과 ‘파생’의 이분법적인 구성으로 보았다. 따라서 단어의 일반적인 형성 원리인 합성과 파생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가르쳐 단어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한다.

다음은 교육과정의 조직적 · 위계적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고등학교 ‘독서

와 문법’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단어 형성의 원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7] 2012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밑줄 연구자)

- 독서와 문법 -	
독서와 언어의 본질	● 독서의 본질 ● 언어의 본질
국어 구조의 이해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 글의 구성 원리 ● 독서의 방법
독서의 실제와 국어 자료의 탐구	● 독서와 국어 생활 ● 국어 자료의 탐구 ● 독서의 가치와 성찰
[영역 성취 기준]	
<p>독서와 문법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u>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사고 능력, 탐구 능력</u>을 기르고,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독서 문화와 국어 문화를 형성하게 한다.</p> <p>문법은 언어에 내재해 있는 원리와 규칙이며, 국어 문법은 개별 언어로서의 국어에 내재해 있는 원리와 규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리와 규칙은 언어 활동에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저 지식 체계이다. 문법은 국어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국어를 통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문법 능력은 국어 능력의 토대로서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등과 관련을 맺으며, 국어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고 국어 의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p>	
[내용 성취 기준]	
<p>(8) 단어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탐구한다.</p> <p>파생어, 합성어를 통하여 단어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p>	

원리를 탐구할 수 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부분보다는 전체 속에서 단어 형성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상품, 가게, 동아리, 동호회 등의 이름, 축약어 등에서 새말을 만드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탐구하도록 한다.

위의 [표 7]은 ‘단어 형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201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중학교에서는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한다.’라고 제시되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에 대한 호기심을 형성하고, 이를 탐구하여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단어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탐구한다.’라고 하며 ‘파생어’, ‘합성어’와 같은 문법 용어들이 제시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단어 형성의 원리를 탐구하게 된다.

2018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본고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나오지 않아서 다루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이 전개되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2012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독서와 문법’에서 ‘독서’가 독립된 과목으로 배정되고, ‘문법’이라는 용어 대신 ‘언어’로 바뀌어 ‘언어와 매체’가 됐다는 것이다.²⁾ 이관규(2016)에서는 이렇게 다른 영역과 달리 뚜렷한 이유

2)

[표 8] 2012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의 교과목 체재 변화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초등 · 중학교	고등학교
	선택 과목

없이 공통 국어의 영역명인 ‘문법’이 아닌 ‘언어’를 선택 과목명에 사용한 것은 그간의 문법 교육학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결과라며 안타까워하였다.

국어	국어 I 국어 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u>문법</u> 문학 고전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초등 · 중학교	고등학교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u>언어</u> 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2. 2012 개정 국어교과서의 ‘단어 형성의 원리’ 실행 양상

이 장에서는 201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교과서 총 14종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 형성의 원리’ 부분에 대한 단원 구성, 학습 목표를 정리하였다. 모든 교과서의 구성을 살펴보고 소단원간의 연관성, 교과서 제시의 형태를 비교하여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는 어떻게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보고자 한다.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에는 교과서에 제시된 순서대로 학습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소단원간의 연관성은 학습자들의 학습양상의 계속성과 논리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가 제시한 학습의 형태가 설명 위주인지, 탐구 위주인지의 교과서의 모습을 통해 학습자들의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 아니면 향상될 사고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표 9] ‘단어 형성의 원리’ 부분 교과서의 대단원과 소단원명 학습목표

구분	출판사	대단원명	소단원명	학습목표
국어 ①	지학사	3. 재미있는 단어의 세계	(1) 품사의 개념과 특성	-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파악하기 - 품사의 종류와 특성 이해하기
			(2) 단어 만들기	- 단어의 짜임 분석하기 -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파악하고 국어 의식 고양하기

	창비	3. 품사와 단어의 짜임	(1) 말을 나누는 요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 - 기준에 따라 단어를 분류할 수 있다. - 품사별 특성에 맞게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2) 단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단어 형성법을 이해할 수 있다. - 새롭게 생성된 다양한 단어들의 형성법을 분석할 수 있다. - 의사소통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
	천재 교과서	5. 단어야, 놀자	(1) 단어 쪼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개념 이해하기 - 형태소의 개념 이해하기 - 형태소의 종류 파악하기
			(2) 단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신생과 소멸 파악하기 - 단어 형성법 이해하기 - 새말 만들기
국어 ②	교학사	2. 단어의 갈래와 짜임새	(1) 단어의 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이해하기 - 품사의 종류와 특성 이해하기 - 품사의 특성에 맞게 국어 사용하기

		(2) 단어의 짜임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소 및 어근과 접사의 개념 이해하기 - 짜임새에 따른 단어의 종류와 특성 알기 - 국어의 특성에 맞게 새말 만들기
두산 동아	4. 단어의 세계	(1) 단어의 갈래	-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단어의 짜임	-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 수 있다.
동아 출판	3. 단어와 품사의 이해	(1) 단어 형성법과 새말	-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2) 품사의 개념과 특성	-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단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미래엔	2. 재미있는 우리말	(1) 말소리와 발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음과 모음 등의 음운 체계를 이해한다. - 국어의 음운을 정확하게 발음해야 하는 필요성을 안다. - 다른 언어와의 차이를 통해 우리말 음운의 특성을 이해한다.
		(2) 단어의 짜임	- 합성어와 파생어 등 단어의 짜임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말의 형성 이유와 형성 방법을 안다. - 단어의 구성 방식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본다.
비상 교과서	5. 단어와 자료	(1) 자료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에 사용된 도표, 그림, 사진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한다. - 글쓴이의 의도, 글의 내용, 글의 유통 맥락을 고려하여 자료의 형태와 제시 방법, 순서 등을 분석한다. 	
		(2) 단어의 짜임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짜임에 관여하는 요소의 개념을 안다. - 단어가 형성되는 방법을 이해하고 단어의 짜임을 분석한다. 	
		(3) 새말과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신생, 성장, 소멸의 과정을 이해한다. - 새말을 만들고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료를 만든다. 	
비상 교육 (김)	4. 낱말과 놀이	(1) 단어들의 모임, 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2) 단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한다. 	
비상	4. 단어야	(1) 단어 형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여 	

교육 (한)	놀이		<p>단어 형성법을 파악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말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새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우리말의 아홉 가지 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사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단어를 분류할 수 있다. - 품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신사고 (민)	5. 생각 모으기, 단어 만들기	(1) 토의로 문제 해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의 개념, 절차, 유형 이해하기 - 토의를 통해 문제 해결하기
		(2) 우리말의 생김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소, 단어, 단일어, 복합어의 개념 이해하기 -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고 그 특성 파악하기
		(3) 새말 들여다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말의 뜻과 만들어지는 원리 이해하기 - 새말 만들어 보기 - 새말과 관련된 언어생활에 대해 토의하기
신사고 (우)	3. 단어의 형성과 품사	(1)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소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단어와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어 보면서 형태소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의 말임을 이해한다.

			(2) 단어의 짜임	-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3) 단어의 갈래	-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천재 교육 (박)	3. 단어와 품사	(1) 단어의 짜임과 형성	- 단어와 형태소의 개념 알기 - 단어의 짜임 분석하기 - 다양한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 이해하기	
		(2) 품사의 개념과 특성	-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알기 - 품사의 특성 탐구하기 - 품사의 특성에 맞게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천재 교육 (노)	1. 정보의 세계	(1) 설명하는 글 읽기	-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설명하는 글을 읽을 수 있다.	
		(2) 설명하는 글 쓰기	-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개념에 맞게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쓸 수 있다.	
		(3) 단어의 짜임	-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위의 표는 201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교과서 14종의 ‘단어 형성의 원리’와 관련된 단원과 학습목표를 정리한 것이다.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단원은 주로 『국어 ①』과 『국어 ②』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국어 ①』과 『국어 ②』는 대부분 중학교 1학년 학습자들을 위한 교과서로 채택하는 경향을 봤을 때, 학습자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첫 출발점에서부터 ‘단어’의 정의와 ‘단어 형성의 원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단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 중요한 학습 제재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단어 형성의 원리를 통해서 단어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단어가 모여서 이루는 더 큰 단위인 문장을 만들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어 형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사고력 향상은 단어를 이루는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어근, 접사 등의 개념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구성을 살펴보겠다. 중학교 국어교과서는 검인정으로 모두 14종에 이른다. 따라서 교과서들을 두 가지 기준(다른 단원과의 결합 구조, 교과서의 구성 방식)으로 분류한 뒤, 학습자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의 구성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제시할 교과서의 분류 기준은 ‘다른 소단원과의 결합 구조’이다. ‘단어의 형성’은 대체로 하나의 소단원으로 구성되며, 다른 문법의 영역과 결합하여 하나의 대단원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다른 소단원과의 결합 구조’를 분석하여, 제시된 소단원들이 함께 묶여서 하나의 대단원으로 구성된 이유를 살펴보고 어떤 소단원간의 결합 구조가 학습자들의 학습을 논리적이고 유기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학

습 내용의 배열 구조는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표 10] ‘다른 소단원과의 결합 구조’에 따른 분류

구분	출판사	권수
(1) 품사	교학사, 동아출판, 두산동아, 비상교육(김), 비상교육(한), 신사고(우), 지학사, 창비, 천재교육	9
(2) 형태소	신사고(우), 천재교과서	2
(3) 음운	미래엔	1
(4) 통합 (다른 영역)	비상교과서, 신사고(민), 천재교육(노)	3
총 권수		15 ³⁾

모든 교과서들을 살펴봤을 때, 단원의 구성은 대체로 교육과정에 나타난 내용에 맞추어 차례로 제시되어있다.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단원의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논외로 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의 배열 구조만을 토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장 많은 소단원의 배열구조를 차지하는 품사와의 결합이다. 단원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살펴보기 위해 ‘품사’와 ‘단어 형성’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배열을 살펴보자. ‘① 품사 - ② 단어의 형성’ 순으로 배열된 교과서는 <교학사>, <두산 동아>, <비상교육(김)>, <지

3) 201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수는 총 14권이다. 그런데 교과서 구분의 총합의 수가 15권인 이유는 신사고(우)의 경우 대단원 ‘3. 단어의 형성과 품사’ 안에 소단원 ‘(1)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2) 단어의 짜임, (3) 단어의 갈래’로 형태소와 단어의 형성, 품사의 개념이 함께 묶여서 한 단원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사>, <창비>로 총 5권이었고, ‘① 단어의 형성 - ② 품사’의 순으로 배열된 교과서는 <동아출판>, <비상교육(한)>, <신사고(우)>, <천재교육(박)>으로 총 4권이었다.

품사는 단어들을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분류해 놓은 갈래이기 때문에 단어의 개념을 먼저 배우고, 이후에 품사를 배우는 것이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도 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국어문법론의 내용을 다루는 책의 구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이익섭·채완(2011)에서는 ‘3장 형태소와 단어, 4장 복합어, 5장 파생어, 6장 품사’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기심·고영근(2014)에서도 ‘4장 형태소와 단어, 5장 품사분류의 기준과 실제’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계적인 배움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형태소’ 관련 단원과 결함이다. 형태소를 ‘단어의 형성’ 소단원 안에 넣어 구성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제외하고 형태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한 단원으로 구성된 것을 살펴보았다. 이는 <천재교과서>와 <신사고(우)> 두 개의 교과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천재교과서>는 대단원 ‘5. 단어야, 놀자’ 안에 소단원 ‘(1) 단어 쪼개기, (2) 단어 만들기’로 구성하여 단어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신사고(우)>는 대단원 ‘3. 단어의 형성과 품사’ 안에 소단원 ‘(1)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2) 단어의 짜임, (3) 단어의 갈래’로 구성하여 형태소부터 단어, 품사에 이르기까지 단위를 넓혀가며 체계적으로 단어의 개념을 전달하였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음운’ 관련 단원과 결함이다. 이 구성은 출판사 <미래엔>만이 취하고 있는 독특한 구성이었다. <미래엔>은 대단원 ‘2. 재미있는 우리말’ 안에 소단원 ‘(1) 말소리와 발음, (2) 단어의 짜임’으로 결합하였는데 음운 체계를 이해한 후 단어의 짜임을 배울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는 ‘음운론’ 이후 ‘형태론’을 배우는 것으로 단원간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

문을 갖게 하는 구성이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다른 영역과의 결합’을 통한 교과서의 구성이다. 국어 과목 내에서 다른 영역과 결합하여 한 단원을 구성하는 것은 국어의 통합적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문법’이 문법만의 교육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 영역인 화법, 작문 혹은 읽기 영역, 그리고 문학 영역과 결합하여 학습자들의 배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국어의 통합적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단원의 구성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른 영역과의 통합이라는 면은 좋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떠한 유기적인 관련도 없이 그저 독립적인 단원들을 하나의 대단원 안에 붙여 넣은 것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었다. 먼저 <비상교과서>를 살펴보면 대단원명은 ‘5. 단어와 자료’인데 대단원명에서부터 ‘단어’와 ‘자료’를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속한 소단원명은 ‘(1) 자료 평가하기, (2) 단어의 짜임 이해하기, (3) 새말과 자료’인데 소단원 ‘(1) 자료 평가하기’에서 소단원 ‘(2) 단어의 짜임 이해하기’로 넘어갈 때에 어떠한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었다. <신사고(민)> 역시 대단원명 ‘5. 생각 모으기, 단어 만들기’ 안에 소단원 ‘(1) 토의로 문제 해결하기, (2) 우리말의 생김새, (3) 새말 들여다보기’로 화법 영역의 ‘토의’라는 부분과 문법 영역의 ‘단어 형성의 원리’를 가져왔을 뿐이다. <천재교육 (노)> 또한 대단원명 ‘1. 정보의 세계’ 안에 소단원 ‘(1) 설명하는 글 읽기, (2) 설명하는 글 쓰기, (3) 단어의 짜임’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역시 ‘설명하는 글’에 대한 읽기와 쓰기, 그리고 문법의 영역을 함께 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통합 단원이라고 구분한 것은 다른 영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단원간의 매끄러운 연결보다는 개별적인 단원의 결합으로 밖에 볼 수 없었으며, 서로 다

른 영역의 결합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의 지루함을 없애는 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제시할 교과서의 분류 기준은 ‘교과서의 구성 형식’이다. 교과서는 각 출판사별로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법은 국어의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가르칠 내용이 추상적이지 않고 비교적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문법의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배운 개념을 익힐 수 있는 학습 활동이 이후에 제시되는 지식 위주의 교과서가 존재한다. 반면에 문법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면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학습 활동과 같은 탐구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이후에 내용정리를 통하여 개념을 익히는 활동 위주의 교과서도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식과 활동을 적절히 섞어서 제시하는 교과서도 존재한다. 위에서 설명한 ‘교과서의 구성 형식’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1] ‘교과서의 구성 형식’에 따른 분류

구분	출판사	권수
(1) 지식 위주	교학사, 비상교육(한), 신사고(우), 지학사, 창비, 비상교과서	6
(2) 활동 위주	동아출판, 두산동아, 비상교육(김), 천재교과서, 천재교육(노), 천재교육(박),	6
(3) 지식 + 활동	미래엔, 신사고(민)	2
총 권수		14

출판사의 지향점에 따라 각각의 구성 형식에 맞춰서 분류되어 있는데 지식 위주의 교과서는 6권, 활동 위주의 교과서는 6권, 지식과 활동이 함께 구

성된 교과서는 2권이다. 3가지의 기준으로 나눈 교과서의 구성 형식들 중에서 각 구성의 특성들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교과서들을 한 종류씩 선정하여 교과서의 구성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각 특성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지식 위주의 교과서로써 살펴볼 교과서는 <비상교육(한)>이다. <비상교육(한)>은 ‘4. 단어야 놀자’라는 대단원 속에 ‘단어 형성법’과 ‘우리말의 아홉 가지 품사’ 두 가지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어 형성법’이라는 제목이 처음에 제시 되고, ‘- 단어와 형태소의 개념, - 형태소의 종류, - 단일어와 복합어, - 합성어와 파생어, -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의 소제목에 각각 개념과 예시가 설명된다. 그리고 ‘- 생각 모으기 - 생각 펼치기’로 이어지는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배운 것을 정리하고 탐구할 수 있다.

<비상교육(한)>의 『국어 ②』 교과서는 각각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예시도 잘 나타나있고, 학습자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개념을 구조도로 나누어서 개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하지만 이 교과서는 기존 설명 위주의 교과서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개념 설명이 줄글로 먼저 제시되어 학습자들이 개념을 익히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개념을 완전히 알고 적용할 수 있는지, 개념을 미리 제시하여 탐구 능력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막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부분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활동 위주의 교과서로 살펴볼 것은 <천재교과서>의 『국어 ①』이다. 천재교과서는 ‘5. 단어야 놀자’라는 대단원 속에 ‘단어 쪼개기’와 ‘단어 만들기’ 두 가지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어 만들기’에서는 ‘- 단어의 신생과 소멸, - 단어 형성법, - 새말 만들기’의 제목이 제시되고 각 부분에 이론에 맞는 탐구활동이 제시된다. 이 교과서는 문법 규칙에 대한 설명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학습자들이 직접 문법의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수행하는 탐구활동이 먼저 제시되고 이후에 각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활동을 해 본 이후에 개념을 정리하는 귀납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된 교과서는 학습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틀린 답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틀린 과정을 통하여 교과서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지식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귀납적인 형태로 제시된 교과서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지식 암기 중심의 문법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국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종합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나아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사고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관규, 2007: 105).

설명과 탐구를 적절히 결합하여 제시한 교과서로는 <미래엔>의 『국어 ②』 교과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미래엔>은 ‘2. 재미있는 우리말’이라는 대단원이 ‘말소리와 발음’, 그리고 ‘단어의 짜임’이라는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어의 짜임’에서는 각 문법 내용의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고 이어서 바로 학습자들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부분이 제시되어 바로바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설명으로 학습자들이 큰 틀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이후에 스스로 탐구할 부분이 제시되어 지식을 다질 수 있다.

‘단어 형성의 원리’에 관한 위 세 교과서의 설명 부분을 공통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교과서별 단어 형성법 부분 비교

<비상교육(한)> - 단어 형성법 -	<천재교과서> - 단어 만들기 -	<미래엔> - 단어의 짜임 -
■ 사과 ■ 사과나무: 사과 + 나	다음 활동을 통해 단어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선 ‘밤’, ‘나무’, ‘송이’는 그것만으로도 단어가 된

<p>무</p> <p>■ 꽃사과: 꽃- + 사과 위의 단어들을 형태소로 나누어 보자. ‘사과’는 한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와 달리 ‘사과나무’와 ‘꽃사과’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사과나무’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사과’와 ‘나무’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나, ‘꽃사과’는 중심적인 의미를 지닌 ‘사과’와 ‘달 익은’이라는 의미를 지닌 ‘꽃-’이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사과’에 결합된 ‘꽃-’은 단어의 중심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홀로 단어를 형성하지도 못한다.</p> <p>형태소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할 때, ‘사과’, ‘나무’처럼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꽃’처럼 일부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제한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p> <p>어근은 홀로 단어를 이룰 수 있으나, 접사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므로 홀로 단어를 형성하지 못하고 어근과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다. 이때 ‘사과’</p>	<p>알아보자.</p> <p><보기> 겉쟁이 고기 눈물 떡국 맨발 바다 창문 꽃고추 하늘</p> <p>① <보기>의 단어들을 어근과 접사로 나누어 보고,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로 나누어 보자.</p> <table border="1" data-bbox="639 857 971 1272"> <tr> <td>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td> <td>그렇지 않은 단어</td> </tr> <tr> <td> </td> <td> </td> </tr> </table> <p>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고,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거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p> <p>② ①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어를 아래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자.</p>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그렇지 않은 단어			<p>다. 한편 ‘밤’은 ‘나무’와 결합하면 ‘밤나무’라는 단어가 될 수 있고, ‘송이’와 결합하면 ‘밤송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밤’은 ‘알-’과 결합하면 ‘알밤’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고, ‘햇-’과 결합하면 ‘햇밤’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다.</p> <p>단어를 형성할 때에 ‘밤’, ‘나무’, ‘송이’처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 ‘알-’, ‘햇-’처럼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이때 ‘밤’, ‘나무’, ‘송이’처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고, ‘밤나무’, ‘밤송이’, ‘알밤’, ‘햇밤’처럼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거나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복합어는 다시 ‘밤나무’, ‘밤송이’처럼 ‘어근+어근’으로 구성된 합성어와 ‘알밤’, ‘햇밤’처럼 ‘접사+어근’이나 ‘어근+접사’로 구성된 파생어로 나뉜다.</p> <p><지식 쑥쑥> - 단어의 종류</p>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그렇지 않은 단어					

<p>처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며, '사과나무'와 꽃사과 '처럼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나 접사와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p>	<p>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p>	<p>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p>	<p>단어</p>	<p>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p>
				<p>복합어</p>

제시된 부분은 교과서 안에서 '단어 형성의 원리'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단어 형성의 원리'라는 표현도 교과서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비상교육(한)>에서는 '단어 형성법'으로, <천재교과서>에서는 '단어 만들기'로, <미래엔>에서는 '단어의 짜임'으로 나타난다. 모두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말하고 있지만 각각의 표현 방식은 다르다. 또한, <비상교육(한)>에서는 단어 형성법의 내용을 줄글로 설명하여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기존의 교과서 형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천재교과서>에서는 '<보기>를 보고 ~ 나누어 보자'라고 먼저 학습자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고, 그 활동 이후에 개념을 정리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미래엔>은 <비상교육(한)>과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글 후반부에 <지식 속속>이라는 부분에 개념 정리를 제시하여 산발해 있는 지식들을 하나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지식 위주의 교과서, 활동 위주의 교과서, 지식과 활동을 합쳐놓은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같은 내용을 배우

는 것이지만, 교과서의 구성 모습에 따라 학습자들이 문법 공부를 하고 싶은지의 동기, 또한 문법을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데에 그치는지,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는 창의적 방법이 될지 달라진다. 따라서 앞으로 제시될 교과서의 모습은 학습자들이 실제로 문법의 규칙을 탐구하고 찾아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활동 위주의 교과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학습자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단어 형성의 원리’ 내용 구성을 확인해 본 후, 교육과정의 연계성 확인을 위해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6종 교과서에서 문법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목차만을 정리하였다. ‘독서와 문법’은 선택 교육과정이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이어지는 단원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독서와 문법’ 교과서는 대체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순서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짙었다. 따라서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로 구성되어 말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점층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중학교 교과서를 통해 살펴 본 ‘단어 형성의 원리’ 내용은 주로 ‘2. 단어 - 단어의 형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의 규칙을 이용하여 심화·발전시키는 단계이고, 문법의 용어 역시 더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표 13] ‘독서와 문법’(2013) 교과서 6종의 목차 체계

교학사	미래엔	비상교육
II. 국어 구조의 이해 1. 음운 (1) 음운과 음운 체계 (2) 음운의 변동 2. 단어 (1) 단어의 분류 <u>(2) 단어의 형성</u>	II. 국어의 구조와 국어 생활 1. 음운의 이해와 우리말 발음 (1) 음운의 체계 (2) 음운의 변동 2. 단어의 이해와 사용	II. 우리말의 구조 1. 음운 (1) 음운의 체계 (2) 음운의 변동 2. 단어 (1) 단어의 분류 <u>(2) 단어의 형성</u>

<p>(3) 다양한 단어 표기 (4) 단어의 의미</p> <p>3. 문장 (1) 문장의 짜임과 정확한 문장 (2) 문법 요소와 표현 효과</p> <p>4. 담화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2) 담화의 구조와 표현</p>	<p>(1) 품사의 이해 (2) <u>단어 만들기</u> (3)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4) 단어의 의미 관계와 의미 변화</p> <p>3. 문장과 표현 (1) 문장의 짜임 (2) 우리말의 문장 표현</p> <p>4. 담화의 세계 (1) 담화와 국어 생활 (2) 담화의 특성</p>	<p>(3) 단어의 의미 (4) 단어의 표기</p> <p>3. 문장 (1) 문장의 성분 (2) 문장의 짜임 (3) 문장의 표현</p> <p>4. 담화 (1) 담화의 개념 (2) 담화의 표현</p>
지학사	창비	천재교육
<p>Ⅲ. 국어의 이해와 탐구</p> <p>1. 음운 (1) 음운의 개념과 체계 (2) 음운 변동</p> <p>2. 단어 (1) 품사 (2) <u>단어의 형성</u> (3) 단어의 의미 (4)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p> <p>3. 문장 (1) 문장의 성분 (2) 문장의 구조 (3) 문법 요소</p> <p>4. 담화 (1) 담화의 의미와 맥락 (2) 담화의 통일성과 응집성</p>	<p>Ⅱ. 국어 구조의 이해</p> <p>1. 음운 (1) 음운의 체계 (2) 음운의 변동</p> <p>2. 단어 (1) 품사의 분류와 단어의 특성 (2) <u>단어의 형성</u> (3)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4) 단어의 의미 관계와 의미 변화</p> <p>3. 문장 (1) 문장의 짜임 (2) 문법 요소의 이해</p> <p>4. 담화 (1) 담화의 의미 표현 (2) 지시·대응·접속 표현</p>	<p>Ⅱ. 국어 구조의 이해</p> <p>1. 음운 (1) 음운과 음운 체계 (2) 음운의 변동</p> <p>2. 단어 (1) 품사 (2) <u>단어의 형성</u> (3) 단어의 의미 (4)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p> <p>3. 문장 (1) 문장의 짜임 (2) 문법 요소</p> <p>4. 담화 (1) 담화의 특성 (2) 담화의 표현</p>

IV. 사고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방안

1. 국어과 핵심역량과 문법 교육

그동안의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등장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는 방안의 하나로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였다.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라는 것에 가치를 두고 개발되었다. 이 가치에 따라 등장한 핵심역량 6가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표 14]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핵심역량의 6가지 개념

자기관리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자아정체성 확립, 여가 선용, 건강 관리, 합리적 경제 생활, 기본생활 습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 이해, 자아 성찰, 자신감, 자존감 인내심 등
지식정보처리 역량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
	문제 인식, 해결방안 탐색, 해결방안의 비교 및 선택과 실행,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필요 정보 탐색, 정보 수집, 정보 분석, 탐색 정보 체계적 정리, 정보 활용, 매체 활용 능력, 정보 윤리 등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
	소리, 색채, 음악 등으로 표현하기,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 공감, 가치 발견, 자신의 가치 표현, 삶의 의미 발견, 예술적 표현 능력,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 등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등과 같은 인지 사고능력,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과제 집중력, 자발성, 새로운 발상, 호기심, 융합능력, 관찰을 통한 새로운 발견과 창조 등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역량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공감, 경청, 존중, 예절, 갈등 해결, 설득 등
공동체 역량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타인과 협력하는 태도, 법과 규칙 지키기, 질서 지키기, 봉사, 배려, 리더십, 자기 통제, 소속감, 약속 지키기, 자율적 참여 등

위에 제시된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체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강조하는 ‘6가지 핵심역량’을 서술한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서 학습자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이 핵심 역량

6가지 중에서 특히 문법 교육을 통해 쌓을 수 있는 역량은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이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살펴보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문법 규칙들 속에서 학습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만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능력을 문법 교육과 관련 지을 수 있다. 다음은 ‘창의적 사고 역량’인데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법 지식과 정보를 참고하여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 역량’도 문법 교육을 통하여 향상시킬 수 있다. 문법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정한 규칙이다. 따라서 학습한 문법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문장을 만들 수 있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앞에서는 문법 교육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연관된 세 가지 역량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사고력 향상과 관련된 역량을 살펴보면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이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의 세부 내용은 ‘문제 인식, 해결 방안 탐색, 해결방안의 비교 및 선택과 실행,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등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세부 내용은 앞으로 제시할 문법 교육의 탐구 학습법에서 이야기하는 절차와 원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선행된 후에 이어서 문법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은 ‘창의적 사고 역량’이다. 이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통해 사고를 정리·체계화한 후에 이어서 발달시킬 수 있다. ‘창의적 사고 역량’에서 제시하는 세부 내용은 ‘인지 사고능력, 새로운 발상, 관찰을 통한 새로운 발견과 창조’ 등이다. 창의적 사고는 새로운 발상을 통하여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기존의 지식들이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정리된 이후에 이뤄질 수 있다. 기존의 지식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고를 해내는 데에 사고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력의 향상이 나타난

다.

서영진(2015)에 따르면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 여건을 조성하는 교육과정,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설정하며 시대적 ·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국어과 핵심 역량과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는 ‘국어’라는 과목의 학습을 통해 ‘국어’가 추구하는 역량인 비판적 · 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 · 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 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 · 계발 역량을 기를 수 있다.

[표 15]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핵심역량과 개념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
자료·정보 활용 역량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문화 향유 역량	국어로 형성 · 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

	화를 향유 · 생산하는 능력
자기 성찰·계발 역량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는 능력

이들 역량은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 요소로서, ‘국어’는 이들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성취기준 및 효과적인 교수 · 학습과 평가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위에 제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핵심역량과 개념’은 국어 교육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들이다. 이 중에서 ‘단어 형성의 원리’라는 문법 교육을 통한 사고력 확장과 관련된 역량들을 살펴보겠다. 여기에 해당하는 역량은 ‘비판적 · 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 · 정보 활용 역량’이다. 먼저 ‘단어 형성의 원리’에서 필요한 개념은 문법 용어이다. 어근, 접사, 어간, 어미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바로 ‘비판적 · 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 · 정보 활용 역량’이다. 학습자가 분석 혹은 새롭게 만들 단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어’ 과목이 지니는 또 하나의 특성은 국어 교과가 다른 교과의 학습 및 비교과 활동과 범교과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이다. ‘국어’는 범교과적 내용이나 주제를 담은 담화나 글, 작품을 듣기 · 말하기, 읽기, 쓰기의 활동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국어’의 교수·학습과 평가는 학습자가 다양한 차원의 통합적 활동을 통하여 교과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사고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교수학습계획안

Ⅲ장에서 살펴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토대로 ‘단어 형성의 원리’라는 내용 요소를 이용하여 학습자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계획안을 마련해 보기로 하겠다. 구체적인 교수 학습 계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박영목(2011: 403)을 참고하여 문법 영역의 지도 모형은 어떤 원리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다.

■ 모형의 원리

- 언어 학습목표를 인식하도록 한다.
- 문법 영역은 개념의 습득 과정임을 반영한다.
-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언어 기능의 향상과 언어 사용 능력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자의 언어생활, 언어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갖도록 한다.
- 개념 습득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강조한다.
- 단원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학습 방법을 선정한다.
- 교사는 학습자가 언어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 언어 지식의 결과보다 국어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개념 학습 시 기본 사례를 예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도와준다.

위의 10가지 모형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문법 영역의 교수 학습 모형이 만들어 진다. 문법 교수 학습 방법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은 바로 ‘탐구 학습법’이다. 탐구 학습법은 학습자들에게 주입식으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교수학습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탐구학습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활용한 교수 학습 계획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

탐구 학습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지식을 발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의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해답을 찾아내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한 학습 방법이다. 또한 탐구 학습이란 경험 과정을 통하여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전략을 말한다. 탐구의 목표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새로운 직관을 얻는 것이고 문제를 푸는 것이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탐구 학습은 듀이의 반성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여 개발된 개념이다. 듀이에 의하면 탐구란 ‘어떤 신념, 혹은 상정되어 있는 어떤 지식 형태를, 이 신념 혹은 지식 형태를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근거에 비추어 적극적이며 끈기 있고 세심하게 고찰하는 것 또는 이 신념 혹은 지식 형태가 지향하는 어떤 결론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노진호, 2002: 69)이다.

탐구 학습은 지식, 태도, 과정의 세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요인인 ‘지식’의 문제는 문법 지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에서 비롯하지 않고 문법 지식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의 문법 규범으로 여겨지는 것 역시 설명의 타당성이 높은 해석일 뿐이다. 두 번째 요인은 ‘태도’인데 문법 탐구 학습에서 학습자가 지녀야 할 태도는 ‘의문’, ‘호기심’, ‘이성적 사고’, ‘증거 존중’, ‘객관성’, ‘판단의 연기’, ‘모호성에 대한 용인’이라고 제시한다(김광해, 1995: 225 ~ 227). 탐구 학습은 교사의 일방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탐구 과정을 통하여 결론을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학습 방법보다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필요로 한다. 세 번째 요

인은 ‘과정’으로 학습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탐구학습은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강의식, 설명식, 주입식 방법의 수업과 크게 구별된다. 탐구 학습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 역시 지식관의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찾아낸 정답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해진 것이다. 더 나아가 몇 차시에 걸쳐 내린 ‘모종의 결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대하여 언제나 스스로 재검토와 재검증이 가능하며 또 그래야 한다는 점에서 문법 학습은 늘 ‘과정 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탐구 학습 단계

- ① 문제 정의 단계: 문제, 의문 사항의 인식, 문제에 의미부여, 문제의 처리 방법 모색
- ② 가설 설정 단계: 유용한 자료 조사, 추리, 관계 파악, 가설 세우기
- ③ 가설 검증 단계: 증거 수집, 증거 정리, 증거 분석
- ④ 결론 진술 단계: 증거와 가설 사이의 관계 검토, 결론 추출
- ⑤ 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 단계: 새로운 자료에 결론 적용, 결과의 일반화 시도

제시된 탐구 학습의 모형을 활용하여 사고력 향상을 위한 단어 형성의 원리 교수 방안과 학습자가 단어를 분석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사고력을 구분해 보겠다. 먼저 합성어 5개, 파생어 5개 각각을 제시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앞뒤, 군밤, 첫사랑, 밤낮, 새옷, 맨발, 지우개, 놀이, 웃음, 낚시질

가장 먼저 위에 제시된 10가지의 단어를 합성어와 파생어로 각각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는 합성어는 ‘앞뒤, 군밤, 첫사랑, 밤낮, 새옷’이고, 파생어는 ‘맨발, 지우개, 놀이, 웃음, 낚시질’이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므로 ‘앞뒤: 앞 + 뒤’, ‘군밤: 군 + 밤’, ‘첫사랑: 첫 + 사랑’, ‘밤낮: 밤 + 낮’, ‘새옷: 새 + 옷’으로 분석할 수 있다.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맨발: 맨 + 발’, ‘지우개: 지우(다) + 개’, ‘놀이: 놀(다) + 이’, ‘웃음: 웃(다) + 음’, ‘낚시질: 낚시 + 질’로 각각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문법 교육의 중요성을 ‘사고력 향상’과 관련지어서 살펴보았다. 기존의 문법 규칙을 암기하는 데에 그치는 문법 교육은 학습자들의 부담과 거부감을 불러올 뿐이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탐구학습법과 위에 제시된 10가지의 단어들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계획서를 마련해 보겠다.

교수 학습 계획의 기본이 된 교과서는 III장 2절에서 살펴보았던 중학교 교과서 14종 가운데 단원의 체계성을 잘 갖추고 있는 <신사고(우)>으로 선정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분류 기준에서 <신사고(우)>는 지식 위주의 교과서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습 계획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국어과 문법 단원 교수 학습 계획서

출판사: 신사고(우)

대단원명: 국어 1학년 2학기 - 3. 단어의 형성과 품사

소단원명: (1)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2) 단어의 짜임

(3) 단어의 갈래

1. 대단원 학습 목표

-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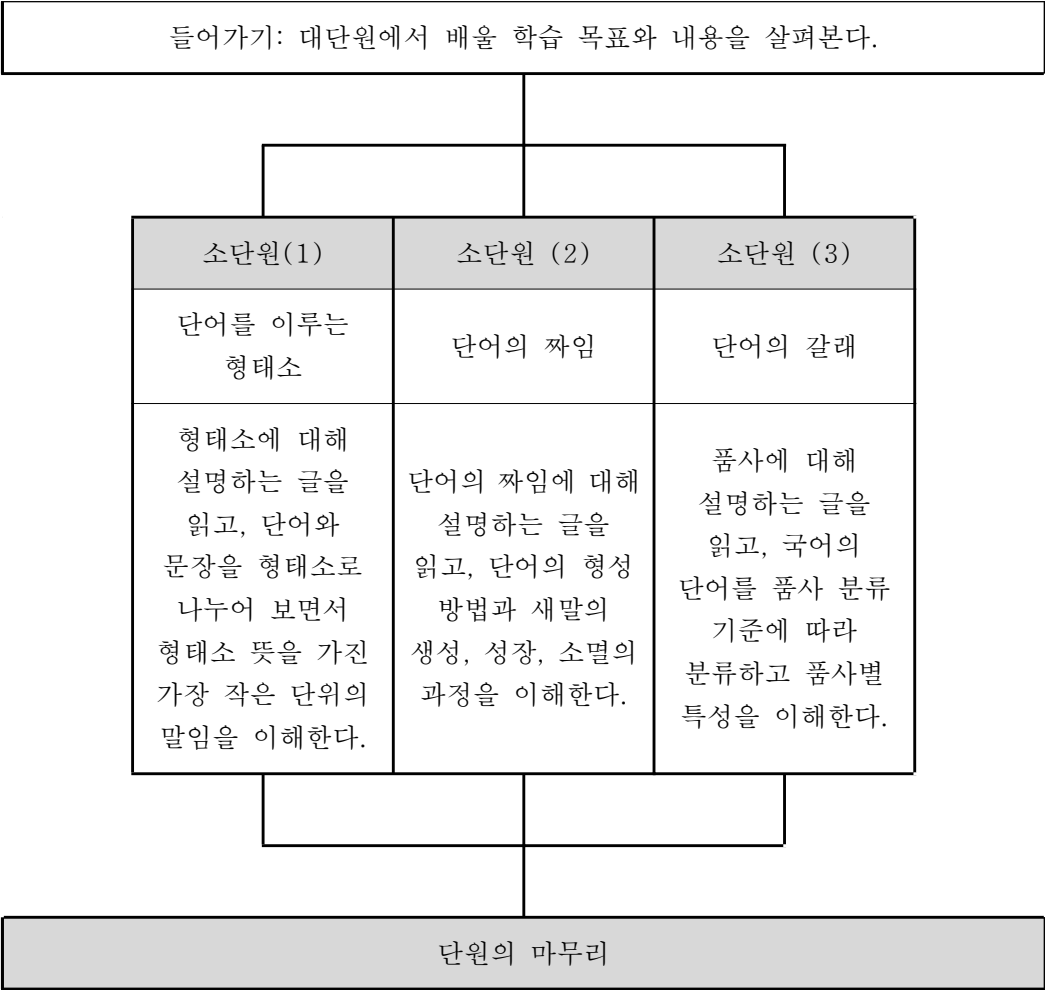
2. 대단원 개관

(1) 단원 설정의 이유

이 단원은 형태소, 단어, 품사의 순서로 학습하여 단어를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여러 종류의 단어들을 언어 자료로 제시하여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 단어의 짜임 등을 탐구하도록 하며, 각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단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는 품사의 개념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단원 구성의 방향

3. 단어의 형성과 품사



(3) 전 학년 학습 내용과의 관련

-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3~4학년군-문법-4)

3. 대단원 교수 학습 운영 방안

교수 학습 계획 (총 9차시)

[표 16] 대단원 교수 학습 계획(총 9차시)

차시	구분	교수 학습 내용	학습자료 및 방법	
1/9	대단원 도입	- 단원 도입부의 제시문을 읽고 정리한다. -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안내한다. - 각 소단원의 학습 내용을 소개한다.	교과서, PPT	
	배우기 전에	- 김밥의 재료를 분석하고, '김밥'이라는 단어를 분석한다.		
본문 학습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 형태소의 개념을 이해한다. - 단어나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한다. - 형태소의 종류를 이해한다.		
	2/9	(1)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활동: 형태소의 개념과 종류를 확인한다. · 목표 활동: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고 종류에 따라 분류해 본다. · 적용 활동: 시어를 형태소로 분석하고 각 형태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3/9	어휘력 높이기	-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고, 형태소의 뜻을 찾아 연결한다. - 단어의 뜻을 알고, 단어와 뜻이 바르게 연결 되도록 사다리 타기를 한다.	교과서, 활동지	
4/9	(2) 단어의 짜임	배우기 전에	- 낱말 카드를 두 개씩 모아 뜻이 있는 말을 다양하게 만든다.	
		본문 학습	'단어의 짜임' - 단어의 특징과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이해한다. - 형성 방법에 따른 단어의 종류를 이해한다.	

			- 새말의 생성과 변화에 대하여 이해한다.	
5/9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활동: 단어의 짜임과 종류를 이해하고, 여러 단어를 짜임에 따라 분류해 본다. · 목표 활동: 합성어와 파생어의 형성 방법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안다. 	
6/9		어휘력 높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활동: 단어의 짜임을 파악하고 새말의 생성, 성장, 소멸에 대하여 토의한다. - 외래어나 외국어로 만들어진 새말과 그것을 고유어로 다듬은 새말을 바르게 연결한다. 	
7/9		배우기 전에	- 여러 동물들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본문 학습	<p>‘단어의 갈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사의 개념을 이해한다. - 품사의 분류 기준을 이해한다. -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한다. 	
8/9	(3) 단어의 갈래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활동: 품사의 특성을 확인하고, 여러 단어의 품사를 알아본다. · 목표 활동: 품사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단어를 분류한다. <p>글에서 품사별로 단어를 찾고 그 단어의 의미와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을 만들어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활동: 품사의 특성에 따른 단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탐구해 본다. 	
9/9		어휘력 높이기	-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십자말풀이를 한다.	
		대단원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을 보고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본다. -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자기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한다. 	

4. 차시별 교수 학습 계획

[표 17] 차시별 교수 학습 계획

학년	1	국어	대단원명	3. 단어의 형성과 품사	차시	5/9
			소단원명	(2) 단어의 짜임		
학습 목표		단어의 형성 방법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학습 단계	지도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전시 학습 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형성 방법 내용 되살려 보기 ▶ 형성 방법에 따른 단어의 종류 구분하기 			3	PPT, 교과서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를 함께 읽는다. ▶ 오늘 학습할 내용을 제시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학습목표] 단어의 형성 방법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div>				
	문제 정의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 ‘김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찾아본다. (주위에 찾아볼 수 있는 단어를 분석해 본다.) 			2	PPT
전개	가설 설정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 활동하기 ▶ 합성어, 파생어 구분하기 (1) 5개씩 제시된 합성어와 파생어를 분류한다. (2) 분류한 합성어와 파생어의 형태소를 분석한다. 			15	단어 카드, PPT
	가설 검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별 발표하기 ▶ 분류한 합성어와 파생어를 발표하고, 각 조별로 비교해 본다. ▶ 분석한 형태소의 내용을 설명한다. 			10	단어 카드, 활동지

	결론 진술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 발표 내용을 듣고, 교사가 발표 내용을 듣고 문법 내용을 정리한다. ▶ 제시된 합성어와 파생어를 분류하고, 각각의 문법용어를 다시 설명한다. ▶ 합성어와 파생어의 규칙성을 정리한다. 	10	PPT, 교과서
정리	적용 하기	▶ 발견한 규칙성을 토대로 형성평가를 함께 본다.	5	PPT, 활동지
	차시 예고	▶ 단원을 마무리하고, 발견한 규칙성을 가지고 새로운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5. 대단원 평가 계획

(1) 평가 목표

- 단어의 형성 방법을 알고 있는가?
- 단어의 형성 방법에 따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가?
- 학습자 스스로 단어를 만들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가?

(2) 평가 방법

소단원 ‘(2) 단어의 짜임’의 수업에 대한 진단평가는 단어의 형성 원리를 알고, 스스로 단어를 형성하여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한다.

(3) 평가 자료

[소단원 형성평가]			
▶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ㄱ) 친구들과 뒷동산 <u>밤나무</u> 아래에서 만나기로 했다. 서진이는 머리를 짧게 깎아 머리가 <u>밤송이</u> 처럼 되었다.			
(ㄴ) 가을이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서 <u>햇밤</u> 을 보내 주신다. 산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u>알밤</u> 을 주웠다.			
(ㄷ) 어머니께서 <u>밤</u> 과 <u>대추</u> 를 넣어 약식을 만들어 주셨다.			
(1) (ㄱ)과 (ㄴ)에 밑줄 친 낱말을 각각 형태소로 분석해 보자.			
밤나무	밤송이	햇밤	알밤

(2) (ㄱ)과 (ㄴ)에서 ‘밤’의 앞뒤로 결합한 형태소들이 홀로 쓰일 수 있는지 써 보자.

(3) (ㄱ), (ㄴ)의 밑줄 친 말들과 (ㄷ)에서 밑줄 친 ‘밤’의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해 보자.

V. 결 론

본고는 문법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의 사고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사고력’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생각하는 힘’의 중요성이 커지며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전과는 다르게 산재해 있는 많은 정보들을 적절히 취합하고 학습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문법 교육의 방법에서 벗어나 문법 규칙을 스스로 찾고 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학습자의 사고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직접 교수 학습법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안인 탐구 학습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단어 형성의 원리’를 배우는 탐구학습법의 각 단계에서 체득할 수 있는 사고력의 하위 체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법용어를 제대로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을 통하여 사실적 사고를, 각 문법용어를 이해하여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분석적 사고를, 서로 다른 단어들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하여 종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단어 형성의 원리’라는 문법 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법 교육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III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근간이 되는 2012 개정 교육과정의 ‘단어 형성의 원리’ 부분을 살펴보고, 교육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교과서 14종을 분석하여 교과서의 구성과 내용 선정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다. 분류한 교과서들 중 각 특성이 잘 나타나는 교과서의 모습을 실제로 확인해 보았고, 학습자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상적인

교과서의 구성을 생각해 보았다.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교과서의 모습은 학습자들의 열린 사고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분류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면 배움의 순서가 체계적이고, 설명 위주보다는 탐구 위주로 구성된 교과서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창의융합형 인재의 양성을 위해 제시된 핵심역량들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문법 교육을 설계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제시된 핵심역량들 중에서 문법 교육에 적합한 핵심역량을 ‘비판적 · 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 · 정보 활용 역량’으로 논의를 좁혀서 제시하고, 이에 따른 문법 교육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찾아보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람직한 교과서를 토대로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단어 형성의 원리’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단원 구성이 체계적이고, 설명 위주의 교과서였지만 제시된 설명이 일반적인 문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본문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사고(우)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의 문법 교수 · 학습 방법보다는 학습자들 스스로 생각하고 규칙을 찾아가는 탐구 학습법, 사고 중심의 학습법을 통한 교육이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고력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탐구 학습법을 통한 ‘단어 형성의 원리’ 학습이 실제로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측면 인지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문법 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문법 교육뿐만 아니라 국어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학습자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연구와 방안이 더 나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과정

2012 개정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 기술
부

교과서

- 김종철 외(2013), 『국어 ①』, 서울: 천재 교과서
김태철 외(2013), 『국어 ②』, 서울: 비상교육
남미영 외(2013), 『국어 ②』, 서울: 교학사
노미숙 외(2013), 『국어 ②』, 서울: 천재교육
민현식 외(2013), 『국어 ②』, 서울: 신사고
박영목 외(2013), 『국어 ②』, 서울: 천재교육
방민호 외(2013), 『국어 ①』, 서울: 지학사
윤여탁 외(2013), 『국어 ②』, 서울: 미래엔
이관규 외(2013), 『국어 ②』, 서울: 비상 교과서
이도영 외(2013), 『국어 ①』, 서울: 창비
이삼형 외(2013), 『국어 ②』, 서울: 두산동아
우한용 외(2013), 『국어 ②』, 서울: 신사고
전경원 외(2013), 『국어 ②』, 서울: 두산동아
한철우 외(2013), 『국어 ②』, 서울: 비상교육

참고논문

- 강민이(2016), “탐구형 문항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사고에 대한 연구: 음운·형태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청: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고춘화(2009a), “교육내용으로서의 국어적 사고 범주 설계”, 『문학과 언어』 31, 서울: 한국문화융합학회, pp. 1 ~28.
- 고춘화(2009b), “사고력 함양을 위한 문법 교육 방안 연구: 명사의 의미 기능과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5, 서울: 국어교육학회, pp. 155 ~ 188.
- 김능희(2014), “통합적 문법 교육의 교과서 실현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대행(1998), “사고력을 위한 문학교육의 설계”, 『국어교육연구』 5,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5 ~ 28.
- 김슬기(2016), “문법 탐구에서의 문제발견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은성(2007), “학습자들은 왜 문법학습을 꺼리는가?- 문법학습 부진 요인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회』 40, 서울: 국어교육학회, pp. 35 ~ 72.
- 김현진(2015), “사고력 향상을 위한 단어 형성법 탐구학습활동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혜연(2008), “평가를 통한 문법 교육 개선 방안 연구: 고등학생의 문법적 사고력 신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가영(2008), “문법 탐구 경험의 교육 내용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노명완(2004), “국어 교육과 사고력”, 『한국초등국어교육』 24, 서울: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 1 ~ 36.
- 박서영(2014), “문법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영진(2015),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 공통 교육과

- 정 ‘국어’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56, 서울: 청람어문교육학회, pp. 67 ~ 106.
- 서혁(1997), “국어적 사고력과 텍스트의 주체적 이해”, 『국어교육학연구』 7, 서울: 국어교육학회, pp. 131 ~ 164.
- 안주호(2013), “성취기준을 통해 본 2011 개정 교육과정기의 ‘문법’영역의 특징”, 『국제언어문학』 26, 서울: 국제언어문학, pp. 223 - 249.
- 이관규(2007), “국어교육 연구의 새로운 방향: 문법 교육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 『국어교육』 123, 서울: 한국어교육학회, pp.93 - 130.
- 이관규(2016), “2015 교육과정 ‘문법’영역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연구』 51, 서울: 국어교육학회, pp. 89 ~ 133.
-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홍원(2010), “국어교육: 국어과 사고 영역 체계화 연구”, 『새국어교육』 85, 서울: 한국국어교육학회, pp. 319 ~ 351.
- 하성욱(2008), “문법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평가 문항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단행본

- 고춘화(2010), 『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교육론』, 서울: 역락.
-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영채(1999), 『사고력 교육을 위한 학습전략』,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채(2013), 『사고력 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유원북스.
- 김일병(2005), 『국어과 교수 학습의 실제』, 서울: 박이정.
- 김종률(2014), 『인지적 사고와 국어 교육론』, 서울: 역락.
- 남기십 · 고영근(2014),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박이정.
- 노진호(2002), 『존 듀이의 교육이론: 반성적 사고와 교육』, 서울: 문음사.
- 노명완(1988), 『국어교육론』, 서울: 도서출판 한샘.

- 노명완(2004), 『교실 수업 전략』, 서울: 박이정.
- 매튜 린맨(2005), 『고차적 사고력 교육』, 고양: 인간사랑.
- 박영목(2011),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연구』, 서울: 박이정.
- 이관규(2013), 『학교 문법 교육론』,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관규(2015), 『교사를 위한 문법 이야기』, 서울: 사회평론.
- 이관규(2016),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서울: 역락.
- 이삼형 외(2007), 『국어 교육학과 사고』, 서울: 역락.
- 이석주 외(2007), 『언어학과 문법 교육』, 서울: 역락.
- 이익섭 · 채완(2011), 『국어문법론 강의』, 서울: 학연사.
- 이재승(2005), 『좋은 국어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 방법 19가지』, 서울: 교학사.
- 이창수(2010), 『국어과 교육과정 평가』, 서울: 경진.
- 이충우(2015), 『국어 문법의 교육과 현상』, 서울: 박이정.
- 손영애(2014),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서울: 박이정.
- 최미숙 외(2015), 『국어 교육의 이해: 국어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열여섯 가지 이야기』,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최지현 외(2007),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서울: 역락.
- 충청남도교육청(1995), 『사고력을 기르는 국어과 교육』, 서울: 대한교과서.
- 한철우 외(2012), 『국어 교육 연구 방법론』, 서울: 박이정.

ABSTRACT

Research on Grammar Education for Improving Thinking

- Focusing on the Principles of Word Formation -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SEO, Hye-in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rovement of student's thinking ability due to grammar education. Grammar education has been considered as a subject which requires memorization of grammatical rules.

But in this study, the main goal is to discuss about what students can gain thinking ability from figuring out grammatical rules by themselves, free from simple memorization, and putting them into practice.

Thinking ability is already applied in various scopes as it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Therefore, this study will narrow it down and focus more on "grammatical thinking ability", which can be improved through grammar education.

Since the focus is on the student's improvement of thinking ability, through research learning method, which is an instructional learning method utilized by professors who consider the process of self-acquired knowledge to be more important rather than direct lecture which is a common practice, sub-factors of thinking ability that can be acquired at each step of learning "principles of word

formation" will be researched. With this, values and functions that students can obtain through grammar education will be observed, and the significance of grammar education will be discussed.

Also, in Chapter 3, educational curriculum's "principles of word formation", which is a basis to teach students at educational facilities, will be discussed. 14 different textbooks that were produced through educational curriculum were analyzed, and they were grouped by different criteria, such as the structure of the textbooks and the contents of the books. Based on the grouped textbooks, the structures of the textbooks that were developed to increase student's thinking ability were analyzed, and an ideal textbook was suggested.

The core capability that had appeared in 2015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was presented, and critical creative thinking capabilities and data information utilization capabilities, which are core capabilities that are suitable for grammar education were discussed. Furthermore, propriety and legitimacy of the grammar education were discussed. Also, based on the ideal textbook, in order to elevate student's thinking ability, "principles of word formation" teaching method was suggested.

According to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explain the fact that through research learning method and think-focused learning method, which are methods to let students to think by themselves and find the grammatical rules, rather than through commonly used instructional learning methods, student's thinking ability increased. However, because of thinking ability's abstract and invisible nature, there were limitations in which methods to measure how much the learning of "principles of word formation" through research learning method has actually helped the students to improve their thinking ability. However, taking the discussion that has been made in this study at a starting point, more studies and methods to improve student's thinking ability by grammar education should occur.

[부록1] <비상교육(한)>의 '단어 형성법' 설명 부분

단어 형성법

- 형태소의 종류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분류할 수 있다. '손', '수건'과 같은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자립 형태소이고, '이', '예쁘-', '-다'는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또한,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가,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가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수건'과 '예쁘다'에서 '손', '수건', '예쁘-'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고, '이', '-다'는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형식 형태소이다.

- 단일어와 복합어

■ 사과

■ 사과나무: 사과 + 나무

■ 풋사과: 풋- + 사과

위의 단어들을 형태소로 나누어 보자. '사과'는 한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와 달리 '사과나무'와 '풋사과'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사과나무'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사과'와 '나무'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나, '풋사과'는 중심적인 의미를 지닌 '사과'와 '덜 익은'이라는 의미를 지닌 '풋-'이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사과'에 결합된 '풋-'은 단어의 중심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홀로 단어를 형성하지도 못한다.

형태소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할 때, '사과', '나무'처럼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풋'처럼 일부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제한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어근은 홀로 단어를 이룰 수 있으나, 접사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므로 홀로 단어를 형성하지 못하고 어근과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다. 이때 '사과'처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며, '사과나무'와 '풋사과'처럼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나 접사와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

- 합성어와 파생어

㉔ 앞뒤 쭉발 물고기자리

㉕ 햇감자 잠꾸러기

㉔의 단어들은 각각 ‘앞+뒤’, ‘쭉+발’, ‘물+고기+자리’로 분석되는데, ‘앞, 뒤, 쭉, 발, 물, 고기, 자리’는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이다. 이처럼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학습활동

- 생각 모으기

1.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하여 단어와 형태소를 알아보자.

<보기> 참새가 감나무 위에 앉았다.

(1) 이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나누어 보자.

단어:

형태소:

(2) 앞의 (1)에서 나눈 형태소를 종류에 따라 분류해 보자.

형태소	홀로 쓰일 수 있는가?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가?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2. <보기> 단어들의 단어 형성법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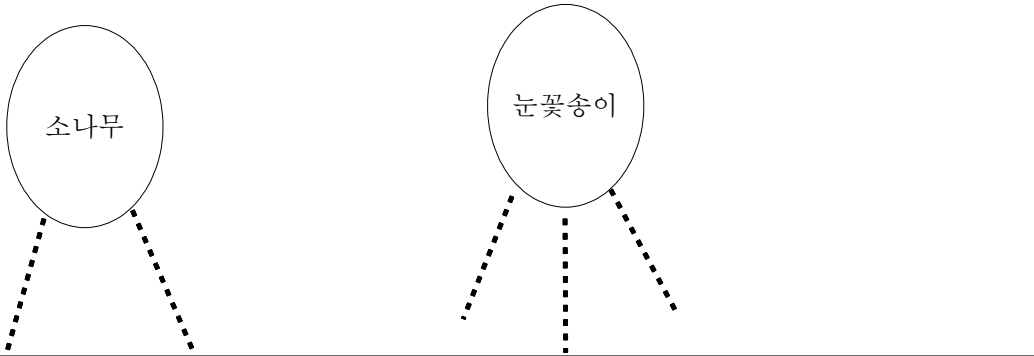
<보기>

지우개 가을 소나무 치솟다 오리 넓이
엄지족 생각 힘들다 낚시꾼 풋과일 눈꽃송이

(1) <보기>의 단어들을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로 분류해 보자.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2) 앞의 (1)에서 찾은 합성어를 어근으로 나누어 보자.



[부록 2] <천재교과서>의 ‘단어 만들기’ 부분

- 단어 형성법

1. 다음 단어를 형태소로 나누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에 색칠해 보자.

밤나무	→	밤	+	나무
밤송이	→		+	
햇밤	→		+	
알밤	→		+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를 **어근(語根)**이라고 하고, 혼자 쓰이지 않고 항상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형태소를 **접사(接辭)**라고 한다. 어근은 실질 형태소이고, 접사는 실질 형태소이다.

2. 다음 활동을 통해 단어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보기>

겹쟁이 고기 눈물 떡국 맨발 바다 창문 풋고추 하늘

❶ <보기>의 단어들을 어근과 접사로 나누어 보고,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로 나누어 보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그렇지 않은 단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고,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거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❷ ❶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어를 아래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

복합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와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로 나뉜다.

3.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①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합성어를 어근과 어근으로 나누고, 합성어의 의미를 설명해 보자.

합성어		어근 + 어근	의미
㉠ 눈밭	▶	눈 + 밭	눈과 밭.
㉡ 책가방	▶	책 + 가방	책을 넣는 가방.
㉢ 피땀	▶	피 + 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노력과 정성.

합성어는 대체로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진다. 합성어 중에는 각각의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대등하게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두 어근 중 어느 한 쪽이 중심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경우도 있다.

② <보기>의 합성어들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자.

<보기>

앞뒤 종이배 돌다리 강산 오가다
가죽신 팔다리 바늘방석 죽대밭

어근과 어근에 대등하게 결합한 합성어	한 어근에 다른 어근을 꾸며 주는 합성어	어근과 어근이 만나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합성어

4.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❶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파생어에서 접사를 찾아 빈칸에 적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

[부록 3] <미래엔>의 '단어의 짜임' 부분

단어 형성법

'밤', '나무', '송이', '알-', '햇-'으로 단어를 만들어 보자.

우선 '밤', '나무', '송이'는 그것만으로도 단어가 된다. 한편 '밤'은 '나무'와 결합하면 '밤나무'라는 단어가 될 수 있고, '송이'와 결합하면 '밤송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밤'은 '알-'과 결합하면 '알밤'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고, '햇-'과 결합하면 '햇밤'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다.

단어를 형성할 때에 '밤', '나무', '송이'처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 '알-', '햇-'처럼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이때 '밤', '나무', '송이'처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고, '밤나무', '밤송이', '알밤', '햇밤'처럼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거나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복합어는 다시 '밤나무', '밤송이'처럼 '어근+어근'으로 구성된 합성어와 '알밤', '햇밤'처럼 '접사+어근'이나 '어근+접사'로 구성된 파생어로 나뉜다.

<지식 쪽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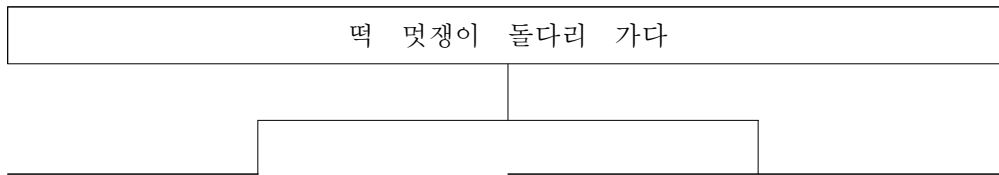
- 단어의 종류

단어	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복합어	합성어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파생어	어근과 접사 또는 접사와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1. 다음 단어 분류 카드를 보고, 단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1) 이 단어를 나눈 기준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1)에서 나눈 기준에 따라 다음 단어를 나누어 보자.



--	--

2. 제시된 접사의 뜻을 참고하여, 각각의 접사가 쓰인 파생어를 찾아 써 보자.
3. 다음은 주어진 단어들을 탐구 과정을 통해 분류한 것이다. 탐구 결과를 빈칸에
바르게 써보자.

- 문제 상황: ‘봄바람’, ‘짜다’, ‘게으름뱅이’, ‘맨손’을 단어의 형성 방법에 따라 분
류하기
- 탐구 과정 1: 단어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 탐구 과정 2: 단어가 ‘어근+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 탐구 과정 3: 단어가 ‘어근+접사’로 이루어져 있는가?

· 결론: 단어들을 탐구 과정에 따라 형성 방법을 분류해 보면, ‘바다’는 단일어가
된다. 그리고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거나,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
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복합어 중 ‘봄바람’은 ()라고 하고, ‘게으름뱅이’는
()라고 한다. 위에 제시된 단어들 중 다른 예로는 ()가 있
다.

4. 다음 단어들에 해당하는 설명을 찾아 길을 따라가며 단어의 종류를 파악해 보
자.